

꼬여만 가는 제2순환도로 협상

광주시-맥쿼리 '운영권' 싸고 3년째 지지부진 보전금 줄이려 요금 인상...시민들 부담만 가중

광주시와 제2순환도로 1구간(지원~두암)과 3-1구간(효덕~풍암)의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 측과의 관리운영권 회수를 둘러싼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시는 늘어나는 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으며, 맥쿼리 측은 오히려 무료구간인 2구간(지원~광주대)을 유료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민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맥쿼리 측에 1구간과 3-1구간의 수익보장비율을 각각 85%, 90%에서 80%로, 수익보장

기간은 각각 28년, 30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는 이 두 구간의 지난해 재정보전금 205억 원에서 33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맥쿼리는 이를 거부하는 대신 무료구간인 2구간을 유료화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출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이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즉석에서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

시는 이렇듯 3년째 접어드는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맥쿼리는 시의 매입 의사에도 아랑곳없이 매년 통행료에 200억 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청구

고 있다. 특히 요금은 인상되지만, 출·퇴근자 등 상시이용자 구간연계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 서비스 조차 없는 등 시민들의 호수머리와 시의 재정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 갈수록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는 1구간이라도 매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맥쿼리의 '2009년 1분기 재무실적 및 통행량·통행료수입 발표'에 따르면 1구간의 통행량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0.7%, 통행료 수입은 1.4% 각각 감소했다.

당초 통행량 조사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감소세로 인해 시의 재정보전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 2007년 4구간(서창~신가) 개통으로 인해 3-1구간의 통행량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난해 재정보전금은 65억 원, 4구간은 22억8천만 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우선 1구간이라도 매일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그 동안 맥쿼리의 입장 변화가 거의 없어 난감하다"며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고려하다가 통행료가 줄어들면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만 늘러서는 여론이 나빠지는 등 아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분간 매입협상에 나서면서 도 맥쿼리의 입장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중앙민간투자사업위원회에 관리운영권 강제회수를 심의요청할 방침이다.

자신의 수익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맥쿼리에게 광주시와 시민들이 언 제까지 끌려다닐 지, 시가 올해 내에 어느 정도라도 협상 성과를 이뤄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무형유산 증묘제례

3월 증묘(세계문화유산) 정전에서 봉행된 세계무형유산 증묘제례에서 증묘제례악 악장과 일무(佾舞)가 연행되고 있다. 증묘제례는 조선왕조 왕과 왕비에게 지내던 제사로 조선왕조가 지내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증묘대제'라고도 한다. /연합뉴스

광주 이혼율 낮다

1,000명당 2건

지난해 인천과 경기도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인천이 2.8로 전국 최고였으며 경기(2.5), 서울(2.3), 강원(2.3), 부산(2.2), 대전(2.2), 충북(2.2), 충남(2.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이혼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광주, 전북, 경북으로 모두 2.0이었다.

인천은 2007년 조이혼율이 3.0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0.2포인트가 내려갔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이혼율을 보이며 8년째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의 조이혼율은 2001년 3.7, 2002년 3.8, 2003년 4.5, 2004년 3.7, 2005년 3.3, 2006년 3.1로 매년 3.0 이상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에 영세 공장 및 자영업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어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한 이혼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시도별 이혼건수는 대구, 광주, 전북, 경북으로 모두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319건), 경기(2만3천379건), 부산(7천908건)이 뒤를 이었으며, 제주(1천238건)와 울산(2천295건)이 가장 적었다.

/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설명회

7일 광주·나주시

4대강 살리기 지역순회설명회가 오는 7일 광주와 나주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3일, 광주와 나주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오후 9시30분부터 여성발전센터 3층 대강당, 그리고 나주에서 오후 3시부터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2시간 가량 설명회가 진행된다.

전담도는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구상한 영상강, 섬진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예로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하에 연구중에 있으며, 지난달 27일 청와사에서 중간성과 보고가 있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4대강 유역에 위치한 전국 14개 시도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되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

공무원 '여름철 노타이 근무' 늘린다

올 여름부터 공무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5일부터 9월25일까지 4개월간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절기 복장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예년(6월1일~8월31

일)에 비해 시작시기는 1주일 빨라지고, 종료시기는 3주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 기간에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복 차림을 할 수 있다.

일반 행정부서 근무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반팔 와이셔츠나 밝은 색상의 셔츠 차림이 권장된다.

행안부, 기간도 한달 확대

그러나 의원 접견이나 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와 경찰, 소방, 교정, 관세, 우정사업분야 등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은 예외가 인정된다.

행안부는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간소복 근무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마스크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구나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 준다

전남도 고용보조금 확대

전남도는 신규투자를 위해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지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제조업체 등이 신규투자자와 고용을 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차로 관련 예산 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종업원 49명 이하의 지방중소기업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새로 투자할 경우, 그리고 종업원 299명 이하의 지방중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할 경우 새로 고용한 인력 1인당 최

장 12개월까지 매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종업원 300명 이상의 지방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을 새로 투자하고 30명을 초과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역시 12개월간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삼일목재 등 도내 6개 업체에 1억2천5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지식경제부에 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해 ㈜한화여수공장 등 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원대상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홍보지를 제작해 도내 모든 제조업체와 제조업지원서비스 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방녹색성장협 출범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중심이 돼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지방녹색성장협의회'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는 3일 전남 청원에서 개최된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서 상반기 중 16개 지자체 민·관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광주시, 전남도는 시·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축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와 녹색정책의 교묘역할을 할 지방녹색성장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자전거단지 조성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발맞춰 순천에 자전거 생산단지 조성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에서 박진영 도지사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순천시에 자전거 생산단지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생산단지는 순천 해룡산업단지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룡산단에 고급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건설(토목)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분 및 지원자격

구분	인원	응시자격	비고	
기술직	공무	00명	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공사	00명	초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리직	관리	00명	대졸이상	상경계열 우대

2. 제출기한

~5월 10일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1차심사: 서류전형
- 2차심사: 면접(1차합격자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위주)

4. 제출처(메일접수)

- e-mail : dy0900@empal.com
- 인사담당 문의처 : 02-556-090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양토건

분할합병공고

대승전기주식회사("갑")에서는 2009년 4월 30일 주식회사 우열("을")에서는 같은날 30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그 임원의 임명(경보보상)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지 분할되는 부문의 "갑"의 권리와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권자는 본 공고제일 이의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기 비로와 이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대승전기 주식회사
광주 서구 병천동 711-19
대표이사 김봉자
주식회사 우열
대구 달서구 갈산동 8-8
대표이사 박영주

정정공고

본 지 2009년 3월 31일자 게재된 주식회사 우연전기와 주식회사 해상전기의 분할합병공고의 내용 중 2009년 04월 01일 개편된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일은 2009년 03월 30일 개편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로 정정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4일

임야판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평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영고자 및 관리인인 본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하며,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묘분묘로 간주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이 일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및 개수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공고인: 전남 강진군 성원면 달내리 725-1 김봉환 (☎ 061-433-4485)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영고자 및 관리인인 본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하며, 본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묘분묘로 간주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이 일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및 개수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 분묘소재지

공고인: 전남 강진군 성원면 달내리 725-1 김봉환 (☎ 061-433-4485)

투자자모심

- 월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목장용지 판매

- 위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목장용지: 6,390㎡(1,933평)
- 대지: 476㎡(144평)
- 총계: 3,734평
- 건물: 2,350㎡(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 매도가: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010-3617-8810